

가족주의와 효*

이성용**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존재하는 효는 가족주의 유형의 효와 개인주의 유형의 효로 구분될 수 있다. 가족주의 유형의 효는 부모와 자식이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라는 인식에서 행하는 효인 반면, 개인주의 유형의 효는 부모와 자식이 별개의 경제적 공동체라는 인식에서 행하는 효이다. 물론 우리사회에서 이 두 가지 유형의 효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 가족주의 유형의 효는 동거와 경제적 지원으로, 그리고 개인주의 유형의 효는 부모님 댁의 방문과 연락으로 측정되었다. 그런 다음, 두 유형의 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되는 세차원의 요소들, 즉 부모관련 변수, 자식관련 변수 그리고 가족주의 관련 변수들이 그것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4년 12월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한 “효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이며, 분석 대상은 결혼한 598명의 기혼자녀이다.

주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가족주의에 관련된 속성들이 여전히 가족주의 유형의 효와 개인주의 유형의 효에 유의미한 영향을 여전히 미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둘째로, 전통적인 가족주의 유형의 효에 충실한 자식이 개인주의 유형의 효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단어: 가족주의, 가족주의 유형의 효, 개인주의 유형의 효, 서구화

I. 문제제기

우리는 개인, 가족 혹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노인의 노후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서구 사회 특히 아시아 국가에는 가족이 일차적으로 노인 부양을 책임져왔던 전통이 있다. 효는 그 전통의 핵심에 있다. 반면 서구 특히 영국에서는 가족보다 교회, 길드 혹은 정부 등이 노인(그리고 빈민) 부양을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어왔던 전통이 있고(MacFarlane 1986), 이러한 전통은 서구의 노인 복지제도

* 이 논문은 2005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작성된 것이다.

** 강남대학교 교양교수부 조교수

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상이한 전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노인부양문제를 서구의 노인복지 제도로 해결하려는 시도들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시도는 우리의 전통적 노인 부양 방식을 약화시켜, 아직 정립되지 않은 정부의 노인복지제도에 막연한 기대를 하게끔 만들고 있다.

우리는 노후를 국가나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렵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자녀에게 노후부양의 면책을 주기에는 우리의 노후에 너무 불안하다. 현실적으로 노후에 전적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노인 부양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이 지어야 한다는 것이 대세이다(김송배·조병은, 1991; 한은주·최배영, 1997; 통계청, 2004). 하지만 노부모 부양의식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약해지고, 현재의 중년층—특히 여성—도 자신이 노부모에게 한만큼 미래에 자녀가 자신의 노후를 부양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이재경, 2002; Janelli and Kim, 2004). 아마 오늘날 세대들 간의 다른 가치관들은 이러한 주장에 얼마간 기여할 것이다.

20세기 후반 특히 1960년대 이후 서구문화와 서구식 대중교육이 급격히 확산된 결과, 우리의 가족문화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의 가치관이 혼재된 상황에서 이어져 왔다(김규원, 1995; 한남재, 1994; 양옥경, 2002). 중장년층의 부모 세대는 주로 가족주의와 가족 성원(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수직적 관계를 강조하는 전통적 가족 삶의 방식에서 성장한 반면, 젊은 세대는 부모세대에 비해 개인주의와 가족 성원 간의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서구식 가족 삶의 방식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개인의 사회화에는 가족과 더불어 학교도 강한 영향을 미친다(아마 근대화될수록 후자가 전자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구식의 대중교육과 대중문화는 개발도상국가의 사람들에게서 서구의 가족생활 방식이 비서구사회의 전통적 가족 삶의 방식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암암리에 내면화시켰다(Caldwell, 1982).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말 중학교 무시험과 1970년대 고등학교 연합시험으로 인한 대중교육의 확산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서구문화(특히 핵가족)의 우월성을 그 당시의 젊은 학생들(오늘날의 중장년세대)에게 인식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서구화 과정을 통해, 전통 가족 방식에서 성장하였던 중장년층 부모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 가족 삶의 방식인 확대가족보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방식의 핵가족을 더 선호하게 되었고, 또 자녀들의 양육도 전자보다 후자의 방식으로 시행했다. 또 그들의 자녀들도 학교에서 사회가 발전되면 당연히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이행된다는 식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서구화 과정과 더불어, 도시화와

산업화와 같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은 핵가족으로의 이동을 당연하게 만들었고 또 가속화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가족 삶의 방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이것은 서구의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가족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이러한 가족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동이 우리의 전통적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즉 효에 대해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오늘날 많은 청장년층은 물론 노년층의 상당수가 자녀가 노부모와 동거하면서 모시는 전통 방식의 효를 원하지 않는다는 연구(김정석·김익기, 2000)가 있다. 또 다른 한 연구(김미경, 2000)는 과거 가족 차원에서 노인복지를 담당하여 왔던 전통 방식의 효를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노인도 적당하게끔 새로운 방식의 효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제 우리는 부모와 자식이 하나의 공동 운명체라는 가족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가족주의 방식의 효 뿐 아니라 각자 독립된 개인주의적 삶을 존중하는 개인주의 방식의 효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이 두 방식 간의 관계를 분석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효의 유형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삶의 방식이 경제적 공동체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족주의 방식의 효와 개인주의 방식의 효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주의 방식의 효는 동거와 경제적 지원으로, 개인주의 방식의 효는 자녀와 별거 상태에서 자녀의 정서적 도움을 받는 정도로 측정되었다. 최소한 필자가 알기에, 우리나라 노인 부양 연구들은 대개 동거와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연락과 방문과 같은 정서적 측면의 효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한경혜·한민아, 2004). 그 다음에 두 유형의 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한다. 결정요인들은 부모의 측면, 자녀의 측면, 그리고 가족주의 측면으로 분류되어 분석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효(孝)란 한자는 자(子) 위에 노(老, old)의 윗부분 글자가 놓여 형성되어 있다. 글자의 형태에서 보듯이, 효는 노부모와 자녀 특히 아들간의 관계를 나타내

1) 한경혜·한민아(2004)의 연구는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이 부모와 자녀 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원들에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이러한 지원들에 대한 결정요인들을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에 초점을 두으로써, 우리의 전통적인 효의식과 행위가 그러한 지원들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다.

며, 그 관계는 부계에서 노부모에 대한 아들의 존경심과 부양을 내포한다(Ikels, 2004). 부모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였으므로, 자녀는 늙으신 부모를 존경하고 봉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방식의 효는 자녀 특히 아들이 부모에게 바쳐야 하는 책무와 존경심을 강조하여 왔다.

효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쌍방 측면보다 자녀에게서 부모로 향하는 일방 측면이 부각되는 것처럼 보인다. 횡단 측면에서 볼 때, 효는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자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종단 측면에서 보면 효는 젊었을 때 드리고 늙었을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과 혜택이 균형이 되는 상호 규범(conjoint norm)이다(Coleman, 1990). 그런데 과거 전통 사회와 달리,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젊었을 때 부모에게 드린 만큼 자신들이 늙었을 때 자신들의 자녀에게서 받을 수 없다는 인식(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해주는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효는 상이 규범(disjoint norm)이 되고 있다. 그럼, 전통사회에서 효가 상호규범이 되게 만든 기제는 무엇이였을까? 가족주의이다. 또 가족주의는 물질적 그리고 제도적(또는 의례적) 조건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비서구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즉, 효는 개인들 간의 계약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각자의 이해관계보다 가족 전체 성원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가족주의(familism)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Petersen, 1993). 우리나라 전통 가족주의 방식의 효는 노부모와 동거하면서 모시는 것이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가족은 생산과 소비를 함께 하는 경제 단위였고, 가족주의는 그러한 경제 단위를 유지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였다. 가족은 하나의 법인단체(corporate unit)로서, 모든 가족 성원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추구했으므로 개인의 이해관계는 가족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였다. 노부모는 가족 전체성원의 복지를 위하여 가족의 자원을 통제하는 가장이므로, 모든 가족 성원 특히 자녀는 가장의 권위에 복종해야 했다. 동일한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지녔지만, 근대화 과정에서도 가업(family business)을 계속 유지해온 대만 노인이 정부가 가업을 철폐시킨 중국본토의 노인보다 자녀에게서 더 전통적인 효를 받고 있다(Whyte, 2004). 그것은 가업을 통해 부모와 자녀에게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하는 가족주의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모는 자녀의 행위를 사적이 아니라 공적으로 통제한다(Becker, 1974; Coleman, 1990; Lee, Parish and Wills, 1994).

가족을 법인단체로 인식시키는 가족주의는 부모와 자식의 이해관계를 동일시시키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킨다. 그러면 전통사회에서 가족주의(그리고 효)는 어떻게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될 수 있을까? 가

족주의는 자녀의 효를 생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조건이지만(Cherry and Martinson, 1981; Fricke, Chang and Yang, 1994) 충분조건은 아니다. 가족주의를 장기간에 걸쳐 유지시킬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들테면 가족 혹은 부모의 재산과 제도적 기반-이들테면 제사-이 필요하다(유석춘·최우영·왕혜숙, 2005; Lewis, 1982; Yin and Hung, 1983). 물질적 조건과 제도적 기반 역시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뒷받침될 때, 부모는 자녀에게서 효를 받아 낼 수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강해진다. 가족 전체 성원의 복지와 안녕을 위한 가문 재산과 제사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책무를 규범화할 수 있는 공적 자본이 되는 반면, 부모 개인의 재산은 사적자본이 된다. 전자의 경우 가족주의도 사적이 아니라 공적 자본이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가족주의 방식의 효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뒷받침되는 규범이므로, 효(그리고 가족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던 사회경제적 환경이 침식되면 효 역시 약화되기 쉽다.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가족주의를 뒷받침해준 물질적 그리고 제도적 장치는 침식되기 시작하였다. 가족은 법인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점점 더 힘들게 되었다(물론 앞에서 말한 대만에서는 근대화 과정 속에서 가족이 법인단체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였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다. 가업을 계승하는 비율이 대만-심지어 일본-보다 낮다.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교육을 통한 성취 지위가 가족 배경의 귀속지위보다 자녀의 사회이동에 더 큰 영향을 발휘한다). 가족이 법인단체로서 기능을 하고 가족주의를 유지할 때, 부모는 재산을 유산(inheritance)보다 계승(succession)의 형태로 자녀에게 물려준다. 유산은 사적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받은 재산을 말하는 반면 계승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가문의 재산이 계승된 경우, 그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공동소유자들(그 가문의 전체 구성원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재산 관리자에 불과하다(Scheffler, 1986). 1999년 개정된 제4차 가족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상속은 출가한 딸도 아들과 같은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는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며 조상에 제사를 지내고 가계를 계승하는 아들도 재산상속에서 우대를 받을 수 없다(김주수, 2000). 물론 개정된 가족법과 같이 균등상속 보다 아들 우대 상속이 일반적으로 더 행해지지만, 재산 상속은 계승의 형태보다 유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박명희·정주원, 2000; 신화용·조병은, 2002; 이정음·김명자, 2001). 가족법(그리고 호주제) 개정은 가족이 여러 세대에 걸쳐 법인단체로 유지시켜 왔던 물질적·제도적 기반을, 그와 함께 가족주의와 부계 전통방식의 효를 침식시켰다.

가족법 개정의 배경에는 근대화 과정에서 함께 따라온 서구화의 영향이 크다. 서구화(westernization)는 서구의 생활양식(혹은 문화)이 암암리 비서구사회의 생활양식(혹은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비서구인들에게 내면화시키는 과정이다. 대중교육과 대중매체는 서구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Caldwell, 1982). 가장 대표적인 예의 하나는, 비서구사회가 서구와 같은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확대가족과 가족문화를 서구식의 핵가족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Goode, 1963). 기독교와 천주교 등의 서양종교도 우리 전통의 유교적 생활 방식과 상충되는 교리를 전파하였다. 물론 이를테면 기독교가 제사를 추모에 배로 대치하여 조상과 부모에 대한 예를 강조하였지만, 과거 전통방식의 유교 의례보다 제사를 통한 효를 약화시켰다. 게다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조상과 부모에 대한 일부 전통 의례들-이를테면 부모의 묘에서 얼마동안 기거하는 것-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가족주의의 변화는 가족 성원들 간의 관계도 변화시켰다. 가족관계는 강한 가족주의에서 개인주의로 그리고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뀌고 있다(김규원, 1995). 과거와 달리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보다 더 중시되며 남아선호도 과거보다 상당히 약화되었다(옥선화 외, 1998; 2000).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부모가 일방적으로 존경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어느 정도 존중해 주어야 하는 쌍방향 존중 관계로 바뀌었다(김정석·김익기, 2001). 부모의 위상이 내려간 반면 자녀의 위상은 높아졌다(옥선화 외, 1998; 2000). 이러한 현상은 부모와 자식관계가 그레노베터(Granovetter, 1973)가 언급한 '약한 유대(weak bond)'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약한 유대의 관계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입장을 개의치 않고 일방적으로 어른존경 방식으로 효를 강조하는 연구(성규탁, 2001)는 한계를 나타낸다. 개인주의 생활과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는 오늘날 한국인에게 가족주의와 수직적 관계를 중시하였던 전통방식의 효는 타당하지 않게 보인다. 게다가 출산율의 감소와 인구이동과 같은 인구구조의 변동은 자녀에게 전통 방식으로 효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체 수준이하의 저출산은 많은 가정에 한두 명의 자녀만을 낳게 함으로써, 딸만 있는 가족을 많이 양산하였다. 과거와 달리 아들에게만 부모부양을 전가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자녀의 감소는 자녀에게 부모 부양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오늘날 노후부양이나 효의 연구는 가족주의와 부모의 측면 그리고 자녀의 측면이 모두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비록 전통적 방식의 효가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노인복지체제

가 확실하지 않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동거하지 않을지라도, 노부모는 자녀에게서 경제적 도움, 신체적 도움, 잦은 방문 및 연락과 같은 정서적 도움 등을 바란다(최정혜, 1994). 도시화와 산업화로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또 부모 역시 자유스러운 사생활을 영유하기 위하여 자녀들과 공동거주보다 별거를 더 원할 수 있다(김경혜, 1998; 박현정·최혜경, 2001; 유성호, 1996). 이러한 개인주의적 사고를 지닌 노부모는 전통적인 가족주의 사고를 가진 노부모와 다른 방식의 효를 원할 것이다. 이를테면 개인주의적 사고를 가진 노부모의 경우, 자녀가 같이 집에 살면서 부양하는 것보다 근처에 살면서 부모님 댁에 자주 방문하여 인사드리는 형태의 것을 원할 수 있다. 또 자녀가 직장관계로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 수 밖에 없는 경우, 부모는 잦은 방문을 바라지 않지만 잦은 연락을 바랄 수 있다. 그리고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경제적 도움을 원할 것인 반면, 경제력이 자녀보다 월등한 부모는 자녀에게서 경제적 도움보다 정서적 혹은 신체적 도움을 원할 것이다(Hermalin et al., 2002; Zimmer and Kwong, 2003).

확실히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아들이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전통 방식의 효와는 다른 방식의 효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계 전통방식의 효를 원하는 부모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오늘날에는 전통 방식의 효를 원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개인주의 방식의 효를 원하는 부모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효 연구는 이 두 형태의 효를 동시에 연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우리의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과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다(김규원, 1995; 한남재, 1994; 양옥경, 2002).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가 나이 먹은 세대에 비해 전자보다 후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동일한 세대일지라도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혹은 사회화 과정에 따라 선호하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효를 강조하는 운동이나 연구는 대개 이러한 다양성-특히 세대 간 차이 뿐 아니라 동일한 세대 내에서도-을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합한 효는 전통적 가족주의와 서구의 개인주의적 수평적 관계가 혼재된 상황에서 찾아야 할 필요가 있고, 두 방식의 효에 가족주의, 부모의 입장, 자식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주의와 개인주의는 혼재되고 있고 또 이 두 가지 가족 이데올로기 모두는 전통 방식과 개인주의 방식의 효에 막강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효의 연구는 여전히 전통방식의 효를 추구하거나(성규탁, 2001) 혹은 오늘날 현대사회에 적합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담론(김미경, 200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통 가족주의 방식의 효와 서구의 개인주의 방식의 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근대화로 변화한 가족주의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비하다. 부모의 부양 혹은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들은 대개 가족주의관련 변수보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김두섭·박경숙·이세용, 2000; 김정석·김익기, 2000; 박경숙, 2003; 한경혜·한민아, 2004). 또 가족주의 관련 변수를 분석에 첨가했을 때도, 효를 제공받는 노인(박현정·최혜경, 2001; 원영희, 1996)이나 여성 개인(송다영, 2004) 입장에 관련된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가족주의에 가장 관련되는 유형의 변수들인 경제적 지원이나 제사 혹은 효의식 같은 것이 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은 두 가지 유형의 효에 부모관련 변수, 자녀관련 변수, 그리고 가족주의관련 변수들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개인주의 방식의 효와 가족주의 방식의 효 간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III. 자료와 분석 변수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경기문화재단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2004년 12월에 실시한 “효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이다. 조사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할당표집 방법에 의해 표본에 추출되었고 설문조사는 면접조사로 수행되었다. 할당에 사용된 변수는 성, 연령, 지역으로 남녀 각각 50%,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이 각 20%씩,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지역 각 50%씩 할당하였다.

그러나 이 분석에서는 분석대상이 기혼자로 국한되므로 미혼자 402명은 분석에서 제거되었다. 기혼자 598명이 이 연구에서 분석되었다. 동거와 경제적 도움이 종속변수가 되는 경우에는 이들 598명 모두가 포함되었지만, 방문과 연락이 종속변수가 되는 분석에서는 부모와 별거 중인 기혼자 458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1. 종속변수

분석될 종속 변수는 부모님과 동거 여부,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드리는지, 그리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 얼마나 자주 부모님 집에 방문하고 연락하는지 여부이다. 동거와 경제적 지원은 부모와 자식이 경제적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주의 유형의 효로 측정하였다. 반면 별거하면서 부모님 집에 방문하고나 연락하는 것은 항상 부모와 자식 간의 경제적 공동체라는 의식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방문과 연락 빈도를 통해 개인주의 유형의 효에 대한 강도를 측정하였다. 어떤 점에서 보면, 부모와 자식이 더 이상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가족주의가 존재하지 않고 그 결과 전통방식의 효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공동의 운명체라는 인식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방문과 연락은 더 이상 '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과 연락을 개인주의 방식의 효에 대한 지표로 사용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부모와 자식들은 하나의 운명체라는 전통이 깊이 남아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거와 경제적 도움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는 20대 이상의 기혼자 598명이, 부모님께 방문과 연락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는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기혼자 458명이 포함되었다.

동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 대상자 589명 중 140명(23.4%)가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고, 458명(76.6%)은 별거하고 있다. 부모님과 동거하는 자는 '1'로,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는 '0'으로 부호화하였다.

경제적 지원. 전체 응답자 중 약 56.5%가 친가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드리는 반면 43.5%는 드리지 않고 있다.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드리는 응답자는 '1'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응답자는 '0'으로 부호화하였다.

<표 1>에서 동거하는 기혼자를 빼버린 결과, 경제적 지원을 드리는 기혼자의 비율은 56.5%에서 45.4%로 줄어든 반면 경제적 지원을 드리지 않는 기혼자의 비율은 43.5%에서 54.6%로 늘어났다. 이는 비동거 기혼자에 비해 동거하는 기혼자가 부모님께 더 경제적 지원을 드린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님의 방문. 이것은 “평소에 부모님을 얼마나 찾아뵙는 편이신가요”라는 질문 항목에 의해 측정되었다. 응답범주는 8개로 구성되었고, ‘전혀 찾아뵙지 않음’은 '1'로, ‘거의 찾아뵙지 않음’은 '2'로, ‘명절, 제사, 행사 등 대소사가 있을 때’는 '3', ‘두세 달에 한번 정도’는 '4', ‘한 달에 한번 정도’는 '5', ‘2주에 한번 정도’는 '6',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7', ‘거의 매일’은 '8'로 부호화되었다. 분석 대상자 458명중 2명(0.4%)이 ‘전혀 찾아뵙지 않음’, 8명(1.7%) ‘거의 찾아

〈표 1〉 분석 변수 빈도표

	동거 및 경제적 지원(N=598)	방문 및 연락(N=458)
동거		
부모님과 함께 거주	140 (23.4%)	
부모님과 따로 거주	458 (76.6%)	458 (100%)
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을 드림	338 (56.5%)	208 (45.4%)
경제적 지원을 안 드림	260 (43.5%)	250 (54.6%)
자녀의 성별		
남자	279 (46.7%)	208 (45.4%)
여자	319 (53.3%)	250 (54.6%)
자녀의 연령		
20대	33 (5.5%)	27 (5.9%)
30대	165 (27.6%)	142 (31.0%)
40대	202 (33.8%)	159 (34.7%)
50대	198 (33.1%)	130 (28.4%)
자녀의 종교		
기독교 및 천주교	215 (36.0%)	172 (37.6%)
불교 및 무교	383 (64.0%)	286 (62.4%)
자녀의 교육수준		
대졸	246 (41.1%)	193 (42.1%)
고졸	309 (51.7%)	241 (52.6%)
중졸	43 (7.2%)	24 (5.2%)
부의 교육 수준		
대졸	46 (7.7%)	35 (7.6%)
고졸 이하	551 (92.1%)	423 (92.4%)
부모 재산		
3억 이상	71 (11.9%)	55 (12.0%)
3억 미만	527 (88.1%)	403 (88.0%)
부모의 건강		
건강함	512 (85.6%)	397 (86.7%)
병환 중	86 (14.4%)	61 (13.3%)
제사		
제사 지냄	394 (65.9%)	286 (62.4%)
제사 안지냄	204 (34.1%)	172 (37.6%)
노후에 자녀와 동거 의향		
동거 의향 있음	111 (18.6%)	82 (17.6%)
동거 의향 없음	487 (81.4%)	376 (82.1%)
노후 부양은 가족이 주체		
가족	189 (31.6%)	139 (30.3%)
다른 곳(개인, 정부 등)	409 (68.4%)	319 (69.7%)

뽑지 않음’, 175명(38.2%)이 ‘명절, 제사, 행사 등 대소사가 있을 때’, 103명(22.5%)이 ‘두세 달에 한번 정도’, 96명(21.0%)이 ‘한달에 한번 정도’, 43명(9.4%)이 ‘2주에 한번 정도’, 27명(5.9%)이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단지 4명

(0.9%)이 ‘거의 매일’ 찾아뵈는다고 응답했다.

연락. 이 변수는 질문항목 “평소에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시는 편입니까”로 측정되었다. 응답범주는 방문과 동일하게 부호화되었다. 분석 대상자 458명중 10명(1.7%)이 ‘거의 연락하지 않음’, 21명(3.5%)이 ‘명절, 제사, 행사 등 대소사가 있을 때’, 49명(8.2%)이 ‘두세 달에 한번 정도’, 102명(17.1%)이 ‘한달에 한번 정도’, 108명(18.1%)이 ‘2주에 한번 정도’, 154명(25.8%)이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그리고 22명(3.7%)이 ‘거의 매일’ 연락한다고 응답했다.

분석방법으로는, 이분변수인 동거와 경제적 지원에는 로짓분석이 행해졌고, 방문과 연락을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는 일반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2. 독립변수

이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부모의 측면에서 효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되는 독립 변수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자식의 측면에서 효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되는 독립변수들이다. 세 번째 유형은 가족주의에 관련되는 변수들로, 여기에는 경제적 지원과 제사,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의향, 가족이 노후부양의 주체라는 인식, 효의식 변수, 그리고 근접성 등이 포함된다. 경제적 지원과 제사는 부모와 자식이 상호 연결된 행위 변수들이지만, 나머지 가족주의 관련 변수는 태도에 관한 변수들이다.

부모 관련 변수에는 응답자 부의 교육 수준, 부모 재산, 부의 직업,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포함되었다.

부의 교육 수준. 응답자의 아버지 중 7.7%(46명)가 대졸인 반면, 92.1%(551명)는 고졸이하이었다. 준거 응답범주는 아버지 교육 수준이 대졸이상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아버지에 비해 자녀에게서 더 많은 존경을 받고, 노후에도 더 많은 효를 받을 것으로 가정된다. 하지만 더 많은 개인주의 사고를 지닐 것으로 간주된다.

부모 재산. 응답자의 부모 중 11.9%(71명)가 3억 이상의 재산을, 88.1%(527명) 3억 미만의 재산을 소유하였다. 준거 집단은 부모 재산이 3억 미만인 응답자 집단이다. 재산이 더 많은 부모는 그렇지 않는 부모에 비해, 자녀로부터 효 행위를 이끌어 낼 더 많은 자원을 가진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주택을 소유한 노인인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높고(박현정·최혜경, 2001; 유성호, 1996; 이가옥 외, 1994), 소득(그리고 주관적 경제수준)도 동거노인보다 별거 노인이 더 높다(박현정·최혜경, 2001). 또 가족 이의

의 국가나 사회단체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자녀와의 동거보다 별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김경혜, 1998). 이런 점에서 볼 때, 부모의 재산은 자녀와의 동거 및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의 효 문화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얼마간 일정 금액의 지원을 안 드릴 수 없다. 하지만 재산이 많은 부모는 적은 부모보다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손병돈, 1998).

부의 직업. 현재 응답자 아버지의 직업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53.7%(321명)가 부의 직업을 응답하였고 나머지 46.3%(277명)는 직업을 언급하지 않았다. 직업이 있는 경우는 '1'로, 없는 경우는 '0'으로 부호화하였다. 부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부의 직업도 자녀의 효행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된다.

친가부모님의 건강. 응답자 중 14.4%(86명)가 자신의 부모님이 병환 중이라고 하고 85.6%(512명)는 건강하다고 응답했다. 부모님이 병환 중인 응답자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삼았다. 일상생활에 불편도가 높으면 자녀가족과 동거를 택하는 경향이 높다(김경혜 1998; 박현정·최혜경, 2001). 일상생활의 거동이 불편을 느낄 때, 노부부는 서로의 신체적 한계로 인하여 자녀와 동거를 택하기 쉽다. 이러한 연구와 반대로, 동거하는 노인이 오히려 별거하는 노인보다 건강상태가 더 양호하는 연구도 있다(모선희, 1999; 유성호, 1996; 원영희, 1996; 이가옥 외, 1994).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노부모의 건강상태와 동거 사이의 관계는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지 않는다.

자식 관련 변수에는 응답자 본인의 성별, 연령, 종교, 소득, 그리고 교육 수준이 포함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년기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결정과 같은 노년기의 삶의 방식이 때로는 노부모 자신의 결정보다 자식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며(한경혜·윤순덕, 2000), 경제적 도움도 자녀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김지경·송은경, 2004).

성별. 본 연구에서 분석된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46.7%(279명) 여자가 53.3%(319명)이며, 부모와 별거하는 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남자 45.4%(208명) 여자가 54.6%(250명)이다. 성별에 따라 효행위들이 유의미한 차이가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연령별.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분석대상 중 198명(33.1%)가 30대 이하이고, 40대가 202명(33.8%), 50대 이상이 198명(33.1%)이다. 준거집단은 30대 이하의 집단이다. 부모와 별거하는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69명(36.9%), 40대가 159명(34.7%), 50대 이상이 130명(28.4%)이다.

자녀 종교 종교별로 보면 36%(215명) 기독교 혹은 천주교신자이고, 64%(383

명) 불교나 무교이다. 준거 집단은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와 천주교 등과 같은 서양종교인 응답자이다. 종교가 불교나 무교인 응답자는 기독교인 혹은 천주교인보다 더 강한 가족주의를 지닐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서양종교가 불교나 무교보다 동양의 가족주의에 반하는 서구의 개인주의를 더 잘 설파할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독교는 제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녀의 월소득. 응답자 중 5.2%만이(31명)이 200만원 이하였고, 23.4%(140명)가 200-299만원, 37.8%(226명) 300-399만, 25.3%(151명) 400-499만, 그리고 8.4%(50명)이 500만 이상이였다. 소득이 많을수록, 부모에게 덜 의존하게-오히려 부모가 그런 자녀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모와 더 거리를 둘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 가능성이 높고, 더 많은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손병돈, 1998).

자녀의 교육 수준.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보면, 41.1%(246명) 대졸, 51.7%(309명) 고졸, 그리고 7.2%(43명) 중졸이였다. 응답자의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른 형태의 효행위를 펼칠 것으로 간주된다. 서구식 교육은 전통적 확대가족보다는 핵가족과 개인주의의 우월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었다.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개인은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개인에 비해 덜 전통적인 효-이를테면 자신의 생활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의-를 바칠 것이다.

가족주의 관련 변수. 경제적 지원, 제사, 노후에 자녀와 동거 의향, 가족이 노후보장, 효의식-집안유지, 부모 중요, 부양책임- 등이 사용되었다.

경제적 지원. 이 변수는 부모와 자녀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인식이 자녀와 부모가 별거할 때 개인주의 방식의 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경제적 공동체라는 가족주의 의식은 부모와 자녀의 별거 상황에서 개인주의 방식의 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제사. 제사는 우리의 전통적 가족주의와 효를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의례이다. 제사를 지내는 집안의 응답자일수록 전통적 의미의 효를 더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응답자의 65.9%(394명)가 제사를 지내고 34.1%(204명)는 제사를 안 지낸다고 응답했다. 준거집단은 제사를 안 드리는 응답자의 집단으로 하였다.

노후에 자녀와 동거의향. 이 변수는 노후에 자녀와 같이 살 의향이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응답자 집단은 자녀와 같이 살 의향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이분되었고, 준거 집단은 노후에 자녀와 같이 살 의향이 없는 응답자의 집단이다. 응답자의 18.6%가 노후에 자녀와 같이 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81.4%가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가족이 노후보장. 이것은 질문항목 “노후부양은 누가 맡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십니까”에서 “자녀를 비롯한 가족”이라고 응답했는지의 여부에 관한 변수이다. 노후 부양에 대해서는 31.6%(189명)이 가족이, 그리고 68.4%는 본인, 국가, 종교 기관 등이 맡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가족이 노후부양의 주체라고 응답한 사람은 ‘1’로, 다른 것을 응답한 사람은 ‘0’으로 부호화하였다.

전통적 효의식. 이 연구에서 분석된 전통적 효의식 관련 질문문항들은 “부모님께 효도해야만 우리집안이 잘 이어진다”(변수명은 집안유지), “부모님이 배우자보다 더 중요하다”(부모중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자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부양책임) 등이다. 각 질문 문항에 대한 각 응답범주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1’, ‘동의하지 않는다’는 ‘2’, ‘그저 그렇다’는 ‘3’, ‘동의한다’는 ‘4’, ‘매우 동의한다’는 ‘5’로 부호화되었다.

주거의 근접성. 이 변수는 자녀가 부모와 별거할 때 같은 동네에 사는지 여부를 말한다. 별거하는 자녀 중 단지 16명만이 친가 부모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였다. 준거집단은 부모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지 않는 집단의 자녀이다. 부모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부모와 교류가 훨씬 높을 것으로 가정된다.

IV. 분석결과

1. 부모관련 변수

우선적으로, 부모관련 변수들이 동거, 경제적 지원, 방문과 연락 등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자. 놀랍게도, 부모관련 변수들인 부의 교육, 재산, 직업, 그리고 건강 모두가 동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이 낮은 노인보다 자녀와 별거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들(원영희, 1996; 유성호, 1996)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 부의 교육수준이 자녀와의 동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 노인의 건강상태도 자녀와의 동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기존 연구—외환위기 이전의 자료들을 분석한—와의 차이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변화한 노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얼마간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경제적 지원에서는 부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이거나, 부모의 재산이 3억 이상

〈표 2〉 효 행위들의 분석 결과

	동거	경제적 지원	방문	연락
부모 관련 변수				
상수	-0.944***	0.322	3.731***	5.448***
부의 교육수준 대졸	0.046	-0.661**	0.059	0.131
부모 재산이 3억 이상	-0.031	-0.845***	0.385**	0.385**
건강	-0.348	-0.008	0.436**	0.394**
부의 직업유무	0.117	0.225	0.047	-0.145
자녀 관련 변수				
상수	-2.401***	-0.894***	5.379***	6.373***
성별(남자)		-0.206	-0.354***	-0.104
연령 40대	0.262	0.540***	-0.477***	-0.066
연령 50대	0.800***	0.268	-0.587***	-0.246
자녀 종교	-0.185	-0.359**	-0.288**	-0.190
자녀 소득	0.360***	0.345***	-0.021	-0.040
고졸(자녀)	0.050	0.387**	-0.251**	-0.303**
중졸(자녀)	0.665**	-0.309	-0.327	0.302
가족주의 관련 변수				
상수	-2.113***	-1.874***	3.477***	5.162***
동거		0.296		
경제적 지원			0.233**	0.206
제사	0.735***	0.168	0.083	0.290**
집안유지	-0.202	0.258*	-0.075	0.023
부모중요	0.214**	0.149*	-0.060	-0.077
부양책임	0.100	0.116	0.232***	0.106
노후 자녀와 동거 의향	0.144	-0.179	-0.214	-0.019
가족이 노후보장	0.116	-0.034	0.072	0.199
같은동네 거주			1.218***	0.045

*, **, ***는 각 회귀계수의 유의도 수준이 0.1, 0.05 0.01임을 나타낸다.

인 경우에는 자녀에게서 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계속)〉 효 행위들의 분석 결과

	동거	경제적 지원	방문	연락
전체 변수				
상수	-2.743***	-2.623***	4.324***	5.536***
부의 교육수준 대졸	0.179	-0.623*	-0.005	0.110
부모 재산이 3억 이상	-0.132	-1.195***	0.287	0.412**
건강	-0.005	0.131	0.232	0.275
부의 직업유무	0.282	0.342*	-0.110	-0.214*
성별(남자)		0.182	-0.314***	-0.053
연령 40대	0.217	0.621***	-0.458***	-0.113
연령 50대	0.761***	0.325	-0.561***	-0.218
자녀종교	-0.132	-0.362*	-0.229*	-0.164
자녀 소득	0.348***	0.382***	-0.074	-0.148**
고졸(자녀)	0.075	0.222	-0.272**	-0.375***
중졸(자녀)	0.608	-0.662*	-0.261	0.251
동거		0.195		
경제적 지원			0.341***	0.374***
제사	0.515**	0.113	0.119	0.287**
집안유지	-0.261	0.189	-0.049	0.059
부모중요	0.205**	0.135	-0.059	-0.078
부양책임	0.049	0.105	0.245***	0.121
노후 자녀와 동거 의향	0.110	-0.193	-0.243	-0.047
가족이 노후보장	-0.021	-0.164	0.126	0.263*
같은동네 거주			1.063***	-0.023

*, **, ***는 각 회귀계수의 유의도 수준이 0.1, 0.05, 0.01임을 나타낸다.

동거하지 않는 기혼자들이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는지에 대해서는, 부모의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부모가 건강할수록 더 많이 연락하고 방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별거하는 기혼자녀의 이기적 행위를 잘 들어낸다. 일본의 경우 취업 주부가 전업 주부에 비해 노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은데, 그것은 동거를 통하여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자녀를 노부모에게 떠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Morgan and Hiroshima, 1983).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부모와 별거하면서 자녀를 출근할 때 노부모에게 맡겼다가 퇴근할 때 찾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젊은 부부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부모가 더 건강할수록 부모에게 더 많이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부모님 댁에 잘 방문하고 연락한다

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게다가 부모의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자녀는 더 부모님택에 잘 방문하고 연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한편으로 이 결과는 또한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여 자녀의 행위를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Bernheim and Summers, 1985; Cox, 1987; Perozek, 1998).

2. 자녀관련 변수

두 번째로 자녀관련 변수에서 살펴보자. 부모와의 동거에 자녀의 연령, 소득, 그리고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원영희, 1996), 자녀의 연령이 30대 혹은 40대보다 50대에 부모와 동거할 확률이 높아진다(김두섭·박경숙·이세용, 2000). 자녀의 연령이 50대가 되면 대부분 부모의 연령은 70대 이상이 된다. 70대 이상이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일상생활의 거동에 불편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또 30대나 40대에 비해 보다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지닌 50대는 이러한 노부모를 모시면서 살 가능성이 높다.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이나 대졸의 학력을 가진 자녀에 비해 중졸의 자녀가 노부모와 동거할 확률이 높았다(김두섭·박경숙·이세용, 2000; 원영희, 1996). 그것은 교육수준이 낮은 자녀가 높은 자녀에 비해 전통적 가족 가치관을 지닐 가능성이 높고, 또 부모와 함께 동거함으로써 이중으로 들어가는 가구 생계비를 한 곳으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Davanzo and Chan, 1994; Knodel and Ofstedal, 2002). 그런데 재미있게도,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자녀의 연령, 종교, 소득,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40대가 30대에 비해 부모에게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이 결과는 30대가 40대와 50대보다 더 많은 경제적 교류를 하였다는 김지경·송은경(2004) 연구와는 상반된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서로 다른 종속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녀가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드리는 경제적 지원인 반면, 그들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녀와 부모의 상호간 경제 교류이다. 소득의 측면에서 보면, 자녀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드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고졸의 자녀가 대졸의 자녀보다 그리고 중졸의 자녀보다 부모에게 더 경제적 지원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연령은 40대, 종교는 불교나 무교이고, 소득은 높고, 교육수준은 고졸인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드릴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

러났다.

부모님 댁 방문에 대해서는 소득을 제외한 모든 자녀관련 변수들-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시댁에 더 잘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락빈도에는 남녀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을 보면, 경제적 지원과는 반대로 30대 자녀가 40대와 50대 자녀보다 부모님 댁에 더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가 기독교 혹은 천주교인 자녀가 다른 종교의 자녀보다 부모님 댁에 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거와 경제적 지원과는 달리, 교육 수준이 대졸인 자녀가 고졸의 자녀보다 더 부모님 댁에 자주 방문하고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자식들이 동거나 경제적 지원과 같이 부담되는 효과보다 덜 부담되는 효과를 잘 수행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동일한 독립변수-이를테면 연령과 교육수준-일지라도 효과의 유형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효과의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자녀관련 변수들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3. 가족주의 관련 변수 분석

세 번째로 가족주의 관련변수의 분석을 살펴보자. 동거에는 제사, 부모님이 배우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부모중요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제사를 지낼수록 그리고 부모님이 배우자 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부모와 동거하는 확률이 높았다. 경제적 지원에는 두 개의 효의식 변수, 즉 ‘집안유지’와 ‘부모중요’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동거여부는 자녀의 경제적 지원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우리 집안이 잘 이어진다는 인식과 부모님이 배우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자녀일수록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드릴 확률이 높다. 방문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자녀일수록,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녀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또 같은 동네에 부모님께서 거주할수록 부모님 댁에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에 대해서는 오직 제사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4. 종합 모형의 분석

앞에서 분석한 각 측면은 독립적이 아니라 다른 측면들과 상호 연관하여 각

유형의 효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측면의 변수들은 다른 측면의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유의미한 영향이 사라질 수도 있고 억제되었던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앞의 분석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의 버팀성(robustness)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부모님과 동거에는 자녀의 연령, 소득, 제사 그리고 부모중요의 효의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각 측면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던 변수들이 모두 버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사와 부모중요 변수의 유의미성은 동거하는 가족에서 부부관계보다 부모와 자식관계가 더 중요시됨을 엿볼 수 있다.

경제적 지원에는 부의 교육, 재산, 및 직업, 자녀의 연령(40대)과 종교 그리고 자녀의 교육수준(중졸) 등이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부의 교육과 재산, 자녀의 종교 변수는 버팀성을 가진다. 통제 후, 부의 직업은 억제 변수로 나타났고, 고졸자녀와 대졸자녀의 경제적 지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중졸자녀가 대졸자녀보다 부모에게 덜 경제적 지원을 드리는 것으로 드러났고, 또 집안유지와 부모중요 등의 효의식 변수는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드리는 데는 자식의 사회경제적 능력, 즉 자식의 성공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모든 가족주의 변수들의 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한 자녀가 부모에게 더 경제적 지원을 더 잘 드린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자녀가 당연히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효의 사상이 내면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방문에는 자녀의 성별, 연령, 종교 교육(고졸), 경제적 지원, 부양책임, 노후 자녀와 동거의향 그리고 같은 동네 거주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통제 후, 부모 측면의 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부모 재산과 건강은 유의미성이 사라진 반면, 다른 변수들은 버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변수와 관련해서 볼 때, 경제적 지원을 드리거나(즉, 부모와 자신이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거나)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의식을 가지는 자식이 그렇지 않는 자식보다 방문과 같은 개인주의 방식의 효를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락에는 부모의 재산, 부의 직업, 자녀의 소득, 자녀의 교육수준(고졸), 경제적 지원, 제사 그리고 가족이 노후부장이라는 생각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부모의 재산, 자녀의 교육수준과 제사의 변수는 버팀성을 가지는 반면, 부모의 건강 변수는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놀랍게도 연락에 대한 종합모형에서는 무려 네 개의 변수—부의 직업, 자녀의 소득, 경제적 지원, 가족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 가족주의 방식으로 효는 동거와 자식의 경제적 지원으로 그리고 개인주의적 방식의 효는 방문과 연락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이 두 유형의 효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세 차원, 즉 부모관련 변수, 자녀관련 변수, 가족주의 관련 변수로 구분된다. 세 차원의 독립변수들이 각 유형의 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전통적인 효 관행이나 효의식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느 차원의 요소들이 어느 유형의 효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4년 12월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했던 “효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주의 요소가 가족주의 유형의 효와 개인주의 유형의 효 모두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비록 경제적 지원의 경우, 종합모형 분석에서 유의미한 가족주의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관련변수가 유의미하다는 것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자식이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방문과 연락 등의 개인주의 유형의 효에 경제적 지원 변수가 유의미하다는 것은 가족주의 유형의 효 행위를 하는 사람이 개인주의 유형의 효도 잘 실천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자녀 관련 변수인 자녀의 연령과 교육 수준, 종교가 전통 방식의 효와 개인주의 방식의 효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분석결과이다. 연령을 보면 50대가 30-40대 보다 노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고 40대가 30대와 50대에 비해 부모에게 더 경제적 지원을 보낼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부모님 댁에는 30대가 더 잘 방문한다. 이는 부모에게 드리는 효의 형태가 자식의 생애주기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암시한다. 교육수준에서 보면 가장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은 대졸 출신의 자식들이 고졸 혹은 중졸 출신의 자식들에 비해 부모님과 동거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드릴 확률이 낮은 반면 방문이나 연락은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식에게 부담을 더 되는 동거나 경제적 지원은 비교적 전통적 사고를 가진 40대와 50대의 자녀 그리고 낮은 교육수준의 자녀가 잘 수행하는 반면, 자녀에게 부담을 덜 주는 부모님 댁의 방문이나 연락은 개인주의 성향이 짙은 젊은 세대와 대졸 출신의 자녀들이 잘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교의 경우, 자녀의 종교가 서양종교인 자녀가 그렇지 않은 종교의 자녀보다 경제적 지원을 덜 드리고 또 부모님 댁에 방문을 덜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결과는 개인주의적 성향과 독립성을 보다 강조하는 서양종교의 특성이 어느 정도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제사를 지내는 자녀는 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고, 또 부모와 별거할 때에도 연락을 자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사가 아직도 가족 성원들의 관계를 끈끈히 묶어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자녀의 이기적 성향이 부모의 재산 변수와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의향 변수, 그리고 부모의 건강 변수의 분석에서 드러났다. 부모관련 변수에서 부의 교육수준이 높고 부모의 재산이 많으면 자녀가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드릴 가능성이 낮지만, 부모님 댁에 자주 방문하고 연락할 확률은 높아진다. 이는 개인주의 성향의 효는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때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노후에 자녀와 동거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이 오히려 의향이 없는 응답자들보다 부모님께 덜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은 부모에 대한 책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자식에게는 노후에 자신 즉 부모에 대한 책무를 요구하려는 이율배반적인 사고를 나타낸다.

비록 전체 모형에서는 유의미성이 사라졌지만, 부분 차원 분석에서 건강변수는 방문과 연락과 같은 개인주의 방식의 효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병약하면 건강할 때보다 덜 방문하고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일 서구의 개인주의 생활 방식이 우리의 전통적 생활방식을 완전히 대체할 경우, 병약한 부모는 자식에게 걱정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뿐이란 사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경혜 (1998), “노인들의 동거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8(1): 107-122.
- 김규원 (1995),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논집》 7: 213-255.
- 김두섭·박경숙·이세용 (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 《한국인구학》 23(1): 55-90.
- 김미경 (2000), “노인복지에 대한 가족사회학적 접근-노인 부양문제를 통해 본 노인복지와 여성복지의 관계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사회학》 34(봄): 65-84.
- 김송애·조병은 (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 303-322.

- 김정석·김익기 (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 김주수 (2000), 친족·상속편. 서울: 법문사.
- 김지경·송은경 (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 따
로 사는 부모 가구와 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5-89.
- 모선희 (1999), “노인과 가족: 흔들리는 가족, 외로운 노인,” 김익기의 《한국
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개발, Pp. 81-119.
- 박경숙 (2003), “세대구조의 다양성과 구조,” 《한국사회학》 37(2): 61-94.
- 박명희·정주원 (2000), “가계내 재산상속 행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8(2); -107.
- 박현정·최혜경 (2001), “한국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미치는 요인들-노인
의 노후 부양가치관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63-75.
- 성규탁 (2001), “어른존경 방식에 대한 탐험적 연구-동아시아에서의 조사들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1(2): 125-139.
- 손병돈 (1998), “가족간 소득이전 결정요인의 계층간 비교,” 《사회복지연구》
11(여름): 99-115.
- 송다영 (2004), “부양의식을 통해 본 노인부양지원정책 방향성,” 《사회복지정
책》 19: 207-233.
- 양옥경 (2002),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의식 연구-서울지역 기
혼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1: 229-256.
- 육선화외 (1998),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 서울시 실태를 중심으
로,” 《대한가정학회지》 36(11): 157-182.
- 육선화외 (2000),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I: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0): 157-180.
- 원영희 (1996), “한국노인의 거주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학논집》 제8권: 77-89.
- 유석춘·최우영·왕혜숙 (2005), “유교윤리와 한국자본주의 정신: 효를 중심으
로,” 《한국사회학》 39(6): 52-66
- 유성호 (1996),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하는 변인: 그 이론적 탐색,”
《한국노년학》 16(1): 51-68.
- 이가옥 외 (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경 (2002), “중년기 여성의 생애 과정과 노년,” 《가족과 문화》 14(3):

53-67.

- 이정읍·김명자 (2001), “중노년기 기혼남녀의 재산상속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15.
- 최정혜 (1994),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4(2): 25-36.
- 한경혜·윤순덕 (2000), “떠난 장남, 남은 장남,” 《한국사회학》 34: 649-670.
- 한경혜·한민아 (2004), “성인자녀의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과 결정요인,” 《가족과 문화》 16(1): 37-61.
- 한남제. 1990. 《현대한국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한은주·최배영 (1997),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본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2): 373-383.
- Agree, E. M., A. E. Biddlecom and T. W. Valente (2005), “International transfers of resources between older persons and extended kin in Taiwan and the Philippines,” *Population Studies* 59(2): 181-196.
- Becker, G. S. (1974),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1063-93.
- Bernheim, B. D. and Summers L. H. (1985),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6): 1045-1076.
- Bian, F., J.R. Logan, and Y. Bian (1998),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Urban China: Proximity, Contracts and Help to Parents,” *Demography* 35: 115-24.
- Caldwell, J. C. (1982), *Theory of Fertility Decline*, New York: Academic Press.
- Cherry, R. L., and Martinson, S. M. (1981), “Modernization and the status of the aged in China: Decline or equalization” *The Sociological Quarterly* 22:253-361.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owgill, D. O. and L. Holmes. (eds.) (1972), *Aging and Moderniza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DaVanzo, J. and A. Chan (1994), “Living arrangement of older Malaysians: Who coreside with their adult children,” *Demography* 31: 95-114.
- Ficke, T., J. S. Chang, and L. S. Yang, (1994), “Historical and

- Ethnographic Perspectives on the Chenses Family,” in *Social Change and Family in Taiwan*, edited by A. Thronton and H. S. Lin, Pp. 22-48.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Goode W. (1963),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New York: Free Press.
- Granovetter, M.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1360-80.
- Hermalin. A. I (edited). (2002), *The Well-Being of the Elderly in Asia*.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Ikels, C. (edited) (2004), *Filial Piety: Practice and Discourse in Contemporary East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Janelli, R. L. and Dawnhee Kim (2004), “The Transformation of Filial Piety in Contemporary South Korea.” in *Filial Piety: Practice and Discourse in Contemporary East Asia*, edited by Ikels, C.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28-152.
- Lee, Yean-Ju, William L. Parish, and Robert J. Wills (1994), “Sons, daughters and intergenerational suppor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4): 1010-1041.
- Lee, Yean-Ju and Z. Xiao (1998), “Children's Support for Elderly Parents in Urban and Rural China: Results from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3: 39-62.
- Lewis, M. J. (1982), “Ag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5: 79-105.
- MacFarlane, A. (1986), *Marriage and Love in England 1300-1840*. Oxford: Basil Blackwell.
- Morgan, P. and K. Hirosima (1983), “The Resistance of extended family in Japan: Anachronism or alternative strate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269-281.
- Perozek, M, G. (1998), “A reexamination of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2): 423-446.
- Peterson, J. T. (1993), “Generalized extended family exchange: a case from Philippin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441-451.
- Scheffler, H. (1986), “The Descent of rights and the descents of persons,”

American Anthropologists 88: 339-350.

Yin, P. and Lai K. Hung. (1983), "A reconceptualization of age stratification in China," *Journal of Gerontology* 38: 608-613.

Whyte, M. K. (2004), "Filial Obligation in Chinese Families: Paradox of Modernization," in *Filial Piety: Practice and Discourse in Contemporary East Asia*, edited by Ikels, C.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06-127.

Zimmer, Z. and J. Kwong (2003), Family size and support of older adults in urban and rural China," *Demography* 40(1): 23-44.

that price increase as a motive of their giving-up smoking are 76.3%, 81.3% and 65.1%.

The smokers estimates of short-run price elasticities from follow-up surveys are -0.6853, -0.6230 and -0.5482 at each survey period. Including non-smokers, estimates of short-run price elasticities from follow-up surveys are -0.3920, -0.3739 and -0.3481 at each survey period. The effect of demand decrease caused by KR500 price increase stayed with little difference for six months because price elasticities between each survey period showed no much change.

Effectiveness and validity of tobacco control by price increase was confirmed through the survey results. Therefore if the government want to attain long term strategic goal to decrease general smoking rate among male adult smokers by 30%, the strong smoking prohibition policy, just like the price increase of December 2004, should be continuously driven.

Key words: tobacco Price, tobacco consumption, price elasticity

Familism and Filial Piety

Sung Yong Lee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 of parents' related variables, children related variables and the familism related variable on the two types of filial piety behaviors, which are the traditional familism type of filial piety and the individualistic type of filial piety. The former is measured by the coresidence with parents, financial support to parents, while the latter is measured by visiting to parents' house and phone calling on parent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the national survey for filial piety consciousness"

administered by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the 598 married children are analysed.

The key findings are followings. The first one is that the attributes related our traditional familism are still th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on both the familism type of filial piety and individualistic types of filial piety. The second is that the children who fulfill the traditional familism type of filial piety also do well the individualistic type of filial piety.

Key words: familism, the familism type of filial piety, the individualistic type of filial piety, Westernization